

『擊蒙要訣』 초간본과 현전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GyeokmongYogyaeol*
First Edition and Extant Edition

임 영 란 (Lim, Young-Ran)*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擊蒙要訣」 現傳本의 간행시기 |
| 2. 「擊蒙要訣」의 편찬배경과 구성 | 고증 |
| 3. 「擊蒙要訣」의 간행과 유통 | 6. 결 론 |
| 4. 「擊蒙要訣」의 판본계통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擊蒙要訣』을 발굴하고, 국내에 현전하고 있는 『擊蒙要訣』의 판본 27종을 조사하여 편찬배경과 구성, 간행과 유통, 판본의 계통, 현전본의 간행 시기 고증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擊蒙要訣』은 선조 10년(1577) 12월에 쓴 저자의 서문과 본문 10장과 부록 <祭儀抄>의 2卷으로 되어 있다. 선조 10년(1577)에 초간 된 이후의 간행과 유통의 경향은 대략 官版의 간행 및 보급시기, 坊刻 및 繡刻本의 출현시기, 근대적 상업출판본의 출현과 유통의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판본계통은 목판본, 금속활자본, 기타로 구분된다. 간행시기를 추정하여 복원한 것은 효종 9년(1658) 三陟府 李聖基 간행본, 영조 3년(1727) 箕營 修補本, 고종 25년(1888) 英陽縣 開刊本, 1901년 宋秉璫 간행본, 광무 6년(1902) 用夏洞 新刊本, 1917년 商西 龍巖 新刊本 등이다. 『擊蒙要訣』의 현전본들을 시기별로 체계화하여 종합하였다. 이들 판본에 나타나는 판식의 흐름은 초기의 9행 15자본에서 黃海監營本(1629) 이후 9행 18자본이 유통되기 시작하고, 『栗谷先生全書』 간행 이후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11행 20자본과 재주정리자로 찍은 10행 20자본 등으로 판식이 다양해지고 개화기 이후 신연활자본의 간행으로 이어진다. 版心の 魚尾의 모양은 초기본은 黑魚尾이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2-3葉의 花紋魚尾로 바뀌고 활자본 이외의 목판본에서는 2葉花紋魚尾가 주류를 이룬다.

要語: 『擊蒙要訣』, 『擊蒙要訣』 초간 추정본, 『擊蒙要訣』의 판본, 黃海監營本, 『栗谷先生全書』

* 송의여자대학교 강사(younggranlim@hanmail.net)

접수일: 2013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GyeokmongYogyaeol*, presumed to be the first printed book, and looks into the 27 types of woodblock-printed editions of *Gyeokmong Yogyaeol* extant in Korea in the following order of historical research: compilation background and composition; publication and circulation; the system of editions; and the time of publication of the extant edition. *GyeokmongYogyaeol* comprises of the writer's introduction, 10 chapters of text and the 2 volumes of the appendix "Jae-ui-cho" written in December 1577 in the 10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trend after the first publication in the 10th year of Seonjo(1577) is rough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publication and time of dissemination of the government edition 官판; the time the village/town edition 坊판 and the reprint copy appeared; and the appearance of the modern commercial print copy and circulation. The systems of editions are categorized as the block book, the metal print book, and others. The books which were restored once their time of publication was estimated are the Samcheokbu Lee Seong Ghee(李聖基) edition from the 9th year of Hyojong (1658), the Ghee Yong Sooboh edition from the 3rd year of Yeongjo (1727), the Young Yanghyeon revised and published edition from the 25th year of Gojong (1888), the Song Byeongseon edition of 1901, the newly published Yong Hadong edition of the 6th year of Gwangmu (1902), and the newly published Sangseo Yongam edition of 1917 among others. The existing editions of *GyeokmongYogyaeol* have been systemized by time period and pieced together. The printing type began with fifteen-character nine-line editions, then was circulated as eighteen-character nine-line editions after the Hwanghae Gamyong edition(1629), diversified after the publication of *Yulgokseonsaengjeonseo* with such types as the twenty-character eleven-line edition which would reduce production cost and the twenty-character ten-line edition which was printed by jaejujeonglija, and was followed by the publication of the Shinyeon printed edition after the time of enlightenment. The ending of the word was heug-eomi for the early version and changed into flower-pattered word endings with the shape of 2-3 leaves as with the passing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the block books aside from printed book, 2-leaved flower-pattered word ending became the mainstream.

Key words: *GyeokmongYogyaeol*, *GyeokmongYogyaeol* early edition,
GyeokmongYogyaeol edition, *HwanghaeGamyong* edition,
Yulgokjeonseo. *Yulgokseonsaengjeonseo*

1. 서론

우연한 기회에 행초서로 쓴 手書刻跋文이 있는 「擊蒙要訣」 목판본을 구입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발문의 끝 부분이 결락되어 있고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글자는 판독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몇 달 뒤 이 책을 底本으로 한 錦沙 柳忠傑(1588-1665)의 장서인이 날인된 필사본 「擊蒙要訣」을 통해 이 발문의 전모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선조 15년(1582) 具灌(?-1590)이 옥천군수로 부임했을 때 관내의 사대부들이 스스로 경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 널리 읽히기를 바라며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책이 충청도의 옥천에서 구관이 간행한 것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 「擊蒙要訣」에는 선조 10년(1577) 겨울에 율곡이 쓴 서문이 본문의 앞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렇듯 발문이 있는 책을 보게 된 것이 처음이었다. 옥천 간행본의 입수를 계기로 「擊蒙要訣」의 판본에 나타나는 서지를 조사해보니 율곡이 해주에서 간행한 초간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현전본에 대한 서지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간행본들이 간행시거나 간행지역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이 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擊蒙要訣」의 간행본들이 가지는 서지적 특성상 초간본의 현전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현전하는 초간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둘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셋째, 현전하고 있으나 초간본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의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擊蒙要訣」은 선조 9년(1576) 栗谷 李珥(1536-1584)가 黃海道 海州의 隱屏精舍에서 初學의 향방을 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선조 10년(1577) 12월에 저술하여 간행한 후 조선시대 대표적 초학 교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간 추정본을 중심으로 선조 10년(1577)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擊蒙要訣」의 간행과 유통을 알아보고 판본의 계통을 분석하여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간행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잘못 알려진 판본의 간행시기도 규명하여 간행시기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栗谷先生全書」나 「三先生遺書」 등에 포함되어 있는 「擊蒙要訣」과 원전을 轉寫한 필사본을 제외한 일제강점기(1945) 이전까지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책으로 제한하였다.

2. 「擊蒙要訣」의 편찬배경과 구성

조선시대 초학 교육의 목적은 倫理道德을 修身하여 성리학의 윤리관을 정립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초기 세종 16년(1434)에는 「三綱行實圖」를 인쇄하여 반포하고 가르치도록 하였고¹⁾ 세조 11년(1465)에는 「五倫錄」을 간행하였으며²⁾ 중종 33년(1538)에 이르러서는 「二倫行實圖」가 간행·반포되었다.³⁾

율곡의 「擊蒙要訣」은 조선초기부터 이어진 시대 사회적 초학 교육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규범을 중시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6세기에 있어 士林세력을 주축으로 한 성리학의 토착화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조선초기의 중앙집권화 정책으로 지방수령에게 절대적 권한이 부여되면서 이들 지방수령과 결탁한 훈구세력들이 부를 독점하면서 부패하여 개혁성향을 띤 사림세력에 의해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사림세력은 각종 士禍로 인해 좌절을 겪고 만다. 사림세력들은 향촌사회에 성리학적 질서를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아래 만연한 관료들의 사회적 비리를 궁극적으로 성리학적 修身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士林派가 勳舊派와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으로 士禍를 통해 박해를 받고 있었으나 도덕적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정치적 입지를 넓혀 나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자체가 생활화되기에 이르렀던 시대적 현상도 「擊蒙要訣」이 저술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 하겠다.

1) 「世宗實錄」 64권 4월 27일 2번째 기사.

2) 「世祖實錄」 36권 7월 25일 2번째 기사.

3) 「中宗實錄」 87권 7월 7일 2번째 기사.

율곡이 42세 때에 부제학을 사퇴하고 3월에 경기도 坡州의 栗谷으로 돌아왔다가, 10월에 海州 石潭으로 가서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저술한 「擊蒙要訣」의 편찬경위는 율곡이 선조 10년(1577) 12월 지은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海山(海州)의 남쪽에 거처를 정하니, 한 두 명의 학생이 따라와 묻고 배웠는데, 나는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또 처음 배우는 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학문을 하겠다는) 굳은 뜻도 없으면서 범연(泛然)히 더 가르쳐주기를 청하니 이것은 서로 도움이 되는 바가 없고, 도리어 남의 비방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한 책자를 써서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어버이를 받들고 남을 대하는 방법을 대강 서술하고 이름을 擊蒙要訣이라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마음을 셋고 다리를 세워(자리를 잡아서) 그 날부터 공부에 착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나 또한 오랜 동안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여 왔는데 이것으로써 스스로 경계하고 살피고자 하노라.⁴⁾

學問을 高遠玄妙 한데서 구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쳐 ‘立心飭躬奉親接物之方’을 일깨우고자 함이 직접적 편찬 동기였던 것이다. 또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른바 학문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과 동떨어지거나 또한 뭔가 특별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⁵⁾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율곡의 「擊蒙要訣」은 서인의 대표 인물이던 그가 낙향하여 서원을 건립하고 향촌사회의 교화를 위해 후학을 양성하고자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初學의 향방을 정하지 못하여 굳은 뜻이 없는 제자들에게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하며,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道學의 입문을 제시한 윤리교육서라 할 수 있다.

「擊蒙要訣」의 구성은 선조 10년(1577) 12월에 쓴 저자의 서문과 본문 10章과

4) 余定居海山之陽有一二學徒相從問學余慙無以爲師而且恐初學不知向方且無堅固之志而泛泛請益則彼此無補反貽人譏故略書一冊子粗敘立心飭躬奉親接物之方名曰擊蒙要訣欲使學徒觀此洗心立脚當日下功而余亦久患因循欲以自警省焉.

5) 人生斯世非學問無以爲人所謂學問者亦非異常別件物事也.

부록 <祭儀抄>의 2卷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입지(立志) · 혁구습(革舊習) · 지신(持身) · 독서(讀書) · 사친(事親) · 상제(喪制) · 제례(祭禮) · 거가(居家) · 접인(接人) · 처세(處世) 등 10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뒤 이어 祭禮를 다룬 사당도(祠堂圖) · 시제도(時祭圖) · 설찬도(設饌圖)와 제의(祭儀)의 출입의(出入儀) · 참례의(參禮儀) · 천헌의(薦獻儀) · 고사의(古事儀) · 시제의(時祭儀) · 기제의(忌祭儀) · 묘제의(墓祭儀) · 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 등이 <제의초>로 수록되어 있다.

요약하면 충효교육과 예절교육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충효의 측면에서는 事親과 處世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處世章에서는 出仕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만약에 출사하게 되면 충효를 제일 먼저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절의 측면은 儀式生活과 대인관계, 처세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儀式은 喪禮와 祭禮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정성을 강조하여 『擊蒙要訣』의 본문과는 별도로 뒤에 <祭儀抄>로 부연하여 다루고 있다.

3. 「擊蒙要訣」의 간행과 유통

율곡의 저술인 『栗谷先生文集』 11권은 광해군 3년(1611)에 목판본으로 편찬·간행되었다. 이후 현종 15년(1674)에 교서관 필서체자로 다시 간행되었다. 이 문집은 율곡의 시문 위주로 편집되어 잡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는 영조 25년(1749)에 율곡의 遺文 및 詩集 · 文集 · 續集 · 外集 · 別集을 합본하고 『聖學輯要』, 『擊蒙要訣』 등을 補編하였고, 영조 18년(1742)에 율곡전서자로 『栗谷先生全書』 30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순조 14년(1814), 고종 11년(1874)에 목판으로 번각되기도 하였다. 1915년에는 석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율곡의 전집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으나 『擊蒙要訣』은 『栗谷先生全書』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擊蒙要訣』은 선조 10년(1577)에 초간 된 이후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일제시기

까지 유통되었다. 현전하는 「擊蒙要訣」의 판본은 총 27종이 확인되는데, 목판본이 16종으로 가장 많으며,⁶⁾ 활자본은 11종이다.⁷⁾

「擊蒙要訣」 현전본을 분석해보면 초간 이후의 간행과 유통의 경향은 대략 관판의 간행 및 보급시기, 방각 및 번각본의 출현시기, 근대적 상업출판본의 출현과 유통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官版의 간행 보급시기

官版의 간행 보급시기는 해주에서의 초간 이후 18세기 중반 「栗谷先生全書」의 간행시기까지로 볼 수 있다. 율곡은 「擊蒙要訣」을 지은 후 바로 간행하여 해주의 유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생 자신이 은병정사(소현서원)에서 학동들을 가르칠 때 교재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율곡이 해주의 석담으로 돌아가 저술을 마친 후 은병정사에서 판각하여 간행했던 사실은 안정복 手澤 목판본 「攷事撮要」(1585) 책판목록의 기록에 해주에 소장되어 있는 「擊蒙要訣」 책판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⁸⁾

또한 「朝鮮王朝實錄」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초간 이후 길지 않은 기간 사이에 전국에 알려져 초학 교재로 이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초간 이후 6년 후인 선조 16년(1583)의 황해도 유생 등이 상소하여 율곡이 모함에 처한 상황을 변론한 상소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율곡은 해주의 유생들에게 「擊蒙要訣」을 간행하여 나눠주고 교육에 힘썼다고 하였으며,⁹⁾ 선조 19년(1586) 조헌이 올린 상소문에서도 율곡의 「擊蒙要訣」이 바른 도리로 어린 선비들을 가르치고 예로서 풍속을 순화하는 데 편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율곡의 「擊蒙要訣」이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栗谷全書字번각본은 그 底本을 기준으로 활자본으로 분류하였다.

7) 石版本도 포함하였다.

8) 韓國圖書館學研究會 編, 「攷事撮要」(서울: 南文閣, 1974).

9) 「宣祖修正實錄」 17권 9월 1일 7번째 기사.

10) 「宣祖修正實錄」 20권 10월 1일 4번째 기사.

해주 초간 이후 곧이어 전국의 각지에서 轉寫되거나 번각 또는 개판되어 초학 교재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현전본 중 간행시기가 확인되는 선조 16년(1582) 충청도 沃川간행본은 초간과는 불과 5년의 격차를 두고 해주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행된 것으로 『擊蒙要訣』에 대한 당시 士林의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구관(具灌)이 옥천에 군수로 부임한 뒤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지역의 사대부 교화를 위한 교재로 사용하도록 배포하였다는 사실은 해주에서의 초간 이후 옥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간행되어 지역민에게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仁祖實錄』의 기사에 의하면 인조 7년(1629) 중앙의 지시에 따라 해주의 해서감영(海西監營)에서 황해감사(黃海監司) 이경용(李景容, 1580-1635)이 수백 권을 인쇄하여 중앙에 올렸던 사실을 알 수 있다.¹¹⁾ 현전본의 판식을 분석해 보면 해주감영에서 이경용의 주도 하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중앙에 올려진 뒤 각 지방에 배포된 후 지방에서는 이 책을 저본으로 번각하여 간행해 지역민의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조 3년(1727)에 여수와 평양의 감영에서 간행된 목판본은 예외이긴 하나 이 시기 이후에 간행된 책들이 이 간본의 판식과 같은 9행 18자본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효종 9년(1658) 삼척부사 이성기(李聖基)가 간행한 ‘三陟府本’, 숙종 16년(1690) 경성판관(鏡城判官) 정호(鄭澍, 1648-1736)가 간행한 ‘鏡城府本’, 영조 3년(1727)의 ‘湖左水營本’과 ‘箕營本’ 등 官에서 간행한 官版本만 확인된다.

이렇듯 해주에서의 초간 이후 200여년 동안은 지방의 감영에서 적극적으로 간행하여 관내 주민의 교재로 보급하였으며, 영조 18년(1742) 이재(李緯)가 『栗谷先生全書』를 편집하고 영조 15년(1749) 홍계희(洪啓禧, 1703-1771)에 의해 율곡전서자로 간행되면서 『擊蒙要訣』의 간행과 유통이 변환기를 맞는다.

11) 『仁祖實錄』 21권, 7년(1629 己巳) 10월 17일(戊辰) 3번째 기사.

“黃海監司李景容, 印上擊蒙要訣數百本, 上命頒布中外. 擊蒙要訣, 李珥所著也.”

3.2 방각 및 번각본의 출현

방각 및 번각본의 출현과 보급시기는 『栗谷先生全書』의 간행 이후에 해당된다. 『栗谷先生全書』의 간행은 『擊蒙要訣』의 간행에 끼친 영향이 자못 크다. 18세기 후반부터는 『栗谷先生全書』의 권27에 편입되어 있는 율곡전서자(또는 홍계희자)본인 『擊蒙要訣』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목판본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간행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나 간행시기가 확인되는 것으로는 순조 14년(1814)에 간행한 율곡전서자본의 번각본이 있다. 이 시기에 간행된 다른 판본으로는 철종연간(1858-1863)에 간행된 제주정리자본, 고종 25년(1888) 영향현에서 간행한 목판본, 광무 5년(1901)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정조 어제서문을 붙여 간행한 목판본, 광무 6년(1902) 제천의 용하동에서 간행한 목활자본 등이 확인된다.

이 시기는 간행의 주체가 관에서 개인이나 민간으로 이동되는 시기로, 관의 주도로 간행된 경우보다는 민간의 주도에 의한 간행이 증가하고 있다. 『栗谷先生全書』 권27을 이용한 번각본이 출현한 이유 중 하나는 종이의 절약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독서욕구는 높으나 재정이 빈약한 민간에서 기존의 다른 판본에 비해 간행에 필요한 종이의 수량이 10여장 이상 적은 11행 20자의 판식을 취하고 있고 당시 유행하던 취진본 계열의 인서체로 되어 있어 재정이 취약한 방각에 유리하고 유행에도 편승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번각본은 간행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판본들이 많이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3.3 근대적 상업출판본의 출현

20세기 초반부터는 근대적 상업출판본이 나타나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개화기 근대문물의 수입정책에 따른 서구의 신식 출판 및 인쇄기술의 도입의 영향으로 조선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율곡전서자본의 번각 보급과 방각본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인쇄방식을 이용한 신연활자본과 석판본 『擊蒙要訣』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근대적 개념의 상업출판사가 생겨나고 이 출판사들의 주도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판본들이 간행되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간행본으로는 전주의 서계서포(西溪書舖), 문명서관(文明書館)을 비롯해 서울의 조선서관(朝鮮書館), 신구서림(新舊書林), 한남서림(翰南書林) 등 상업출판사들이 간행한 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간행에 필요한 종이의 수량이 적은 율곡전서자본을 저본으로 한 번각목판본과 신연활자본, 석판본 등 간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간행방식도 다양화되었다. 정조의 어제서(御製序)를 권수에 포함하고 있는 석판본 간행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강릉에서 간행된 것이다. 아마도 강릉이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고향인 외가에서 자란 역사적 사실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한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문화보존사업 차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간행시기 미상의 목판본 4종의 경우 판식의 형태로 보아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판의 주도로 간행되어 유통되던 시기에 간행된 책으로 짐작된다.

4. 『擊蒙要訣』의 판본계통

『擊蒙要訣』이 율곡에 의해 저술되어 해주에서 간행된 초간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간행방식은 목판본, 활자본, 신연활자본, 석판본 등이었으며 이들 판본들은 현전본의 간행방식 비중에 따라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기타로 나누어 계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4.1 목판본

초간 이후 18세기 중반까지는 목판을 이용한 간행이 주류를 이루었음이 현전본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데, 간행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현전하는 각종 책판목록

「擊蒙要訣」 초간본과 현전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에 기록되어 있는 「擊蒙要訣」 책판의 소재상황을 조사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와 현전본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표 1> 책판목록에 나타난 책판 소재현황과 현전여부

	攷事 撮要 (1585)	冊板 置簿冊 (1740)	諸道 冊板錄 (1750)	完營冊 板目錄 (1759)	鑲板考 (1796)	各道冊 板目錄 (1840)	重訂 南漢誌 (1846)	湖南 冊板錄	五車 書錄	嶠南 冊錄	古冊板 所在攷	耽羅志	현전
海州營	○	○				○							○ (규장각)
海州 (紹賢書院)					○								○ (개인)
長興營	○												
長城		○											
三陟		○											○ (고려대)
順天				○	○								
順天 (玉川書院)													
泰仁			○	○				○					
泰仁 (校宮)					○								
泰仁 (象頭寺)									○				
濟州牧					○								
濟州 (鄉校)												○	
嶺南觀察營					○					○			
關北觀察營					○								○ (고려대)
鏡城府					○								○ (개인)
關西觀察營 (箕營)					○								○ (국중)
南漢						○	○				○		
全羅左水營				○									○ (전남대)
全羅右水營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전하는 책판목록과 지역의 地誌 가운데 「擊蒙要訣」의 책판소장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12종 정도가 확인된다. 즉, 「攷事撮要」

(1585), 『冊板置簿冊』(1740), 『諸道冊板錄』(1750), 『完營冊板目錄』(1759), 『鏤板考』(1796), 『各道冊板目錄』(1840), 『重訂南漢誌』(1846), 『湖南冊板錄』, 『五車書錄』, 『嶠南冊錄』, 『古冊板所在攷』, 『耽羅志』 등에 『擊蒙要訣』의 책판소재가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책판목록을 통해 확인된 『擊蒙要訣』의 책판소장처는 海州營, 海州(紹賢書院), 長興營, 長城, 三陟, 順天, 順天(玉川書院), 泰仁, 泰仁(校宮), 泰仁(象頭寺), 濟州牧, 濟州(鄉校), 嶺南觀察營, 關北觀察營, 鏡城府, 關西觀察營(箕營), 南漢, 全羅左水營, 全羅右水營 등으로 총 19개처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¹²⁾

책판목록의 기록에 남아 있는 『擊蒙要訣』의 책판소재처인 총 19개처의 책판으로 간행한 책 중 현전본으로 확인된 것은 총 7종으로, 海州營(1629), 海州(紹賢書院)(1577), 三陟(1658), 關北觀察營(刊年未詳), 鏡城府(1690), 關西觀察營(1727), 全羅左水營(1727) 간행본이다. 책판목록에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현전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책판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책판이 있었을 가능성과, 현전본으로 남아 있으나 책 자체에 간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전본 중 목판본으로 간행된 『擊蒙要訣』은 총 17종의 다른 판본이 확인된다. 이들 판본의 계통을 분석해보면 초간본 계통, 옥천본 계통, 황해감영본 계통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4.1.1 初刊本계통

율곡 당시에 간행된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개인소장의 목판본이 있다. 율곡이 선조 10년(1577)에 쓴 서문이 있고, 본문에 이어 부록으로 <제의초>가 들어있다. 율곡이 쓴 서문 이외에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지사항은 없으나 이 책이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첫째, 책을 인쇄한 종이의 지질이 楮紙인데 조선

12) 동일지역인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책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목을 분리하였음.

중기이전 간행본들과 유사한 재질로 가로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표지로 사용된 종이는 官印이 날인된 관문서로, 嘉靖 43년(1564) ‘兵曹’에서 ‘黃海道’에 발급한 關文 문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이 책의 형태사항은 ‘50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0 × 15.3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이다. 9행 15자본으로 「擊蒙要訣」의 초기간행본 판식을 취하고 있으며, 판심의 어미 또한 상하내향흑어미로 전형적인 임란이전의 어미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蜀體계통의 본문 글씨는 해정한 해서체로써 판각상태 또한 일반적인 방각본에 비해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판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섯째, 「누판고」에 초간본의 책판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보면, 해주 소현서원 소장 책판의 인지수는 ‘一牒六張’으로 되어있는데, 1牒은 한지 전지 20장을 뜻하고 한 장에 두 판씩 찍으므로 9행 15자본의 판목을 인쇄할 때 필요한 책당 인지수이며 이 책을 찍는 데 소요되는 종이의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책의 첫 면 상단 여백에 墨書되어 있는 기록에 ‘黃海道巡察使權脩 …’라는 내용이 있는데, 권수(權脩, 1618-?)는 현종 6년(1665)에 등과하여 숙종 4년(1678) 8월 황해도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이다. 이 墨書의 기록이 권수가 황해도순찰사에 재임한 시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니 이 「擊蒙要訣」의 간행시기는 숙종 4년(1678) 이전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간행본은 황해도에서 간행된 것임이 거의 확실하고, 초간본으로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해주의 은병정사(소현서원)에서 간행한 초간의 책판으로 찍은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초간본과 같은 계통의 목판본에는 이 초간본 추정본을 비롯해 총 3종이 해당된다. 영조 3년(1727) 여수 湖左水營(전라좌수영)의 간행본(전남대 3A1-격35○), 간사년 미상의 關北營 간행본(고려대 대학원 C1 A13)이 있다. 판식의 형태로 보아 호좌수영 간행본이나 관북영 간행본은 이 초간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4.1.2 沃川本계통

『擊蒙要訣』의 판본 중 간행시기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책은 선조 15년(1582)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군수인 구관(具灌, ?-1590)¹³⁾이 간행한 것이다. 발문에 의하면 구관이 율곡이 지은 『擊蒙要訣』을 얻어 읽으며 탄복하고 있던 중에 선조 13년(1580) 沃郡의 수령으로 부임하면서 沃郡의 사대부들이 스스로 경계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게 널리 알리고자 하여 선조 15년(1582)에 이르러 책을 간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¹⁴⁾

具灌이 책의 간행에 사용한 『擊蒙要訣』 底本은 발문에 나와 있듯이 시기적으로 보아 해주에서 간행된 초간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海州邑誌』에 ‘具灌은 좌의정 致弘의 증손으로 관직은 부사를 지냈고, 古壯朴에 살았다’¹⁵⁾는 내용이 있어 그가 해주 출신이었음이 확인된다.

13) 丹陽郡 편, 『丹陽郡誌』 (단양: 단양군, 2005), 598.

“구관은 본관이 능성(綾城)이며, 자(字)는 자중(滋仲)으로 황해도 해주 출신이다. 명종 21년(1566) 별시(別試) 병과(丙科) 5위로 등과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古朝62-188) <沃川郡>편의 宦蹟條에 의하면 선조 13년(1580)부터 선조 16년(1583)까지 옥천군수를 역임하였으며 『丹陽郡誌』에 의하면 선조 20년(1587) 단양군수(丹陽郡守)에 부임하였고, 선조 23년(1590) 풍기군수 재임 중 병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14) 『擊蒙要訣』 선조 15년(1582) 沃川本 具灌 跋文.

“右擊蒙要訣乃判書李相公所著也相公嘗居首陽之石潭遠近學徒來集其門諄諄誘掖者無非聖賢切要之言而猶慮其妄意高遠則以奉親接物爲先泛泛請益則以立心飭躬爲要今此十章之文豈非初學入道之指南也夫爲學之大病每失於志不立而流於惰染時習而仍其舊此立志革舊習修業之要也向道之實地必由於攝筋骸而着力窮物理而涵養此持身讀書進德之要也行道之次序莫先於事親事親之尤大者莫切於喪制追遠之道又莫厚於祭禮此事親始終之要也正身立本宜慎於居家日用酬酢當謹於接人守道不回無愧於處世此行已以禮之要也篇末附之以祭儀者亦教人謹於禮儀之節度數之日常不差毫釐之意也相公之誨人若是其深切至要故海西之人纔經數三年咸服其教持身以律遵軌守轍庶變爲鄒魯之遺風氣吁其盛矣余曾是首陽之人其時適從郎僚之末雖未及面承耳提而幸得是篇目擊心歆披閱嘆服者久矣歲在庚辰分符沃郡欲刊而廣布郡中士子咸願而懇告曰相公教人非局於海西一隅而已其爲人也人同此身身同此心則主風化之權者豈囿於一境之內而止乎可以推於一路推於一國亦可以推於天下而無窮矣海西之擊蒙豈不能敷教於湖西乎余聞而是之遂命工鋟梓以迪來裔永以爲沃郡士夫自警自修之資沃之士勉旃勉旃慎勿孤鄙人之所望也 哉時萬曆壬午七月庚申綾城具灌謹跋。”

15) 崔載弼 …[等編]. 『海州邑誌』. 海州 [刊寫者未詳], 1937. 張次62.

구관이 간행한 판본은 초간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나 半郭의 크기로 보아 번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간행본의 형태사항은 ‘1冊(51張): 插圖, 四周單邊半郭 16.5 × 15.2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로 序文 및 卷首 5張 半葉落張, 권말 跋文 1장 낙장이 있으나 이 간행본을 전사(轉寫)한 유충걸(柳忠傑, 1588-1665)의 소장인(所藏印)이 날인되어 있는 필사본 「擊蒙要訣」에 수록된 해서(楷書)의 발문을 참고하여 누락된 발문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옥천 간행본과 같은 9행 15자본 계통에 속하는 간행본은 총 3종으로 옥천군 간행본과 英祖 3년(1727) 平壤의 箕營에서 간행한 箕營修補本(국중 일산古159-22)이 있으며, 간행시기 미상(울곡기념도서관 고451.47-이817ㄱ)의 판본이 1종 있다.

4.1.3 黃海監營本계통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2824) 「擊蒙要訣」은 인조 7년(1629) 황해감사(黃海監司) 이경용(李景容, 1580-1635)이 수백권을 인쇄하여 중앙에 올린 책을 인조의 지시에 따라 중외(中外: 중앙과 지방)에 頒賜한 책으로 확인된다.

「仁祖實錄」에 의하면 인조 7년(1629) 8월 17일 예조에 명하여 「小學」, 「五倫歌」, 「擊蒙要訣」 등의 서적을 반포할 것을 지시했는데,¹⁶⁾ 이 명에 따라 지방 감영에도 인쇄 지시가 내려졌던 듯하다. 이경용은 인조 6년(1628) 12월 25일 황해감사로 임명되어¹⁷⁾ 중앙의 명에 따라 인조 7년(1629) 10월 17일 울곡이 해주의 은병정사에서 기거할 때 저술한 「擊蒙要訣」 수백권을 인쇄하여 중앙에 올렸던 것이다. 중앙에서는 이 해서감영(海西監營, 黃海監營)에서 인쇄한 책을 받아 史庫에 비치하고 중외에 반사하여 두루 읽게 하였음을 현전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인조 7년 「소학」, 「오륜가」, 「擊蒙要訣」 등의 서적 반포계획에 따라 이 세 가지 책이 인행되었음은 분명한데, 이 중 현전하는 것은 「소학」과 「擊蒙要訣」뿐이다.

16) 「仁祖實錄」 21권, 7년(1629, 己巳) 8월 17일(己巳) 1번째 기사.

“小學 五倫歌 擊蒙要訣 等書, 頒布中外.”

17) 「仁祖實錄」 19권, 6년(1628) 12월 25일(신해) 3번째 기사. “以右承旨李景容, 爲黃海監司.”

『소학』은 『小學集說』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조 7년에 訓鍊都監字로 찍은 『소학집설』 내사본이 太白山史庫와 五臺山史庫에 소장되어 있었음이 규장각 소장본(奎2025, 奎1551의1, 奎1551의2)을 통해 확인된다.¹⁸⁾

해서감영본의 형태사항은 ‘4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4 × 16.0 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로 임란전판인 선조 15년(1582) 간행본과 판식에 있어 반곽의 크기가 커지고, 이전의 9행 15자본에서 9행 18자본으로 바뀌었으며 판심의 魚尾에도 花紋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간행본은 중앙의 명에 따라 인조 7년(1629) 海州의 黃海監營에서 간행(규장각 奎2824)한 이후 전국의 여러 곳에서 번각되거나 모각되어 간행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효종 9년(1658) 三陟府간행본(고려대 만송C1A13L 등), 숙종 16년(1690) 鏡城府간행본(장서각 C2-119I 등)이 현전하고 있으며, 고종 25년(1888) 간행된 英陽縣간행본(장서각 C2-119N)도 황해감영본 계통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간행 시기 미상의 판본(영남대 古南378.9-이이口)까지 총 5종이 이 계열에 해당되어 가장 많이 번각되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4.2 금속활자본계통

금속활자본계통에 속하는 『擊蒙要訣』 간행본은 栗谷全書字本(1749), 再鑄整理字本(1858), 新鉛活字本, 正祖序文石版本 등이 해당된다.

영조 25년(1749) 홍계희(洪啓禧, 1703-1771)에 의해 『栗谷先生全書』가 활자(栗谷全書字 또는 洪啓禧字)로 간행된 이후 이 책의 권27에 편제되어 있던 『擊蒙要訣』만을 번각하여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율곡전서자를 이용해 단행본으로 간행한 『擊蒙要訣』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율곡전서자본을 底本으로 하였으므로 금속활자본 계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율곡전서자 계통본으로는 순조 14년(1814)간행본(단국대 고 181.54 이817ㄱ)과 1911년 간행 전주의 西溪書舖 간행본(전남대 3A1-격35○), 1916년 전주의 文明書館 간행본(장서

18) 內賜記: 崇禎二年(1629)十二月日 小學一件五臺山上, 崇禎二年(1629)十二月日 小學一件太白山上.

각 C2-119F) 등이 남아 있다.

철종 9년(1858) 새로이 주조된 再鑄整理字로 刊印한 재주정리자본이 연세대(고서(II) 181.49 격몽요)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판식은 四周單邊半郭 23.5 × 15.1 cm, 無界,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이며 율곡 이이의 서문이 들어 있다.

新鉛活字本 「擊蒙要訣」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신식 인쇄기술의 도입에 따라 이 상업출판사들이 주도하에 간행되었다. 1916년에 처음 서울의 朝鮮書館 刊行本(전남대 3A1-격350)과 서울에서 新舊書林이 간행한 1919년본(동국대 D192.5-이69박), 1921년본(동산도서관 370-이이격) 등이 신연활자본으로 확인된다.

이외에 읍셋인쇄의 초기방식의 활자본인 석판본이 남아 있다. 정조가 12년(1788)에 율곡의 手書본인 「擊蒙要訣」을 보고 지은 정조의 어제서문과 栗谷手書를 저본으로 한 간행본은 모두 석판본으로 강릉에서 간행되었다. 1928년 강릉의 權五成家 간행본(동산도서관 370-이이격)과 1935년 강릉 鄭然基간행본(국중 BA1247-72), 1935년 江陵 江陵古蹟保存會 간행본(고려대 신암C1-A13E) 등이 남아 있다.

4.3 기타

기타 계통을 구분하기 어려운 간행본 5종이 남아 있다. 光武 5년(1901)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정조의 어제서문을 붙여 간행한 목판본(연세대 고서(II) 181.49 격몽요 5)과 광무 6년(1902) 제천의 用夏洞에서 간행한 목활자본(장서각 C2-119E), 1917년 鄭東轍이 경북 상주 龍巖에서 간행한 목판본(고려대 만송 C1-A13H), 1920년 서울 翰南書林 간행 목판본(영남대 古도378.9-이이口), 1922년 서울 翰林書林 간행 목판본(국중 BC古朝17-26-3), 그리고 간행시기를 알 수 없는 9행 21자의 목판본(국중 b11570-30)이 있다.

송병선이 간행한 목판본, 용하동 간행 목활자본, 정동철의 상주간행 목판본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간행한 책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에 의해 간행된 책들로

생각된다. 한남서림 간행본 목판본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상업출판물로 12행 22자본으로 간행하였는데 간행비용의 절감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 『擊蒙要訣』 現傳本の 간행시기 고증

여기에서는 앞에서 다룬 ‘初刊本’, ‘沃川刊行本’, ‘黃海監營本’을 제외한 현전 본 중에서 간행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간행시기 추정에 문제가 있었던 간행본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간행시기를 고증해보고자 한다.

5.1 효종 9년(1658) 三陟府 간행본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만송 C1 A13L)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동곡古 1247-23) 『擊蒙要訣』에는 삼척부사(三陟府使) 이성기(李聖基, 1599-1664)가 간행의 전말을 기록해놓은 후지(後識)가 있어 간행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¹⁹⁾ 기존에 작성된 목록에는 이 간행본을 ‘三陟府刊癸卯木板本’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간행시기 추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가 쓴 후지에 의하면, 울곡의 『擊蒙要訣』은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는 책이어서 영동(嶺東)지역의 여러 郡에서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강원감사인姜栢年(姜栢年, 1603-1681)의 도움을 받아 『家禮』 8권4책을 간행하고 남은 판자(板子)를 모아 열흘 여에 걸쳐 글자를 새겨 간행하게 되었다고 전말을 밝히고 있다.

『孝宗實錄』 20권 효종 9년(1658) 4월 5일 첫 번째 기사²⁰⁾에 의하면, ‘曹漢英을

19) 『擊蒙要訣』 孝宗 9년(1658) 三陟府刊本 李聖基 後識.

“栗谷李先生手著擊蒙要訣爲後學之矜式而曾所刊行絕無而僅有沉嶺東諸郡元無是冊欲爲重刊以布而財力不敷有意未就之際今方伯姜公栢年爺俾府刊出家禮剗剗成就之餘鳩集若干板子仍而鋟梓不十日功告訖吁亦幸矣全城後人李聖基略記顯末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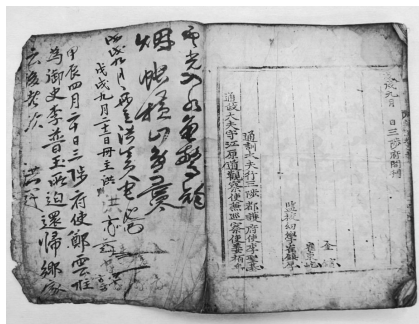
20) 辛未/以曹漢英爲大司諫, 姜栢年爲江原監司, 鄭致和爲知經筵, 鄭傳賢爲慶尙左兵使.

대사간으로, 강백년을 강원 감사로, 鄭致和를 지경연으로, 鄭傳賢을 경상좌도 병사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어 효종 9년(1658) 4월에 강백년을 강원감사로 제수하였음이 확인된다. 「擊蒙要訣」 간행전말을 기록한 識記를 작성한 이성기가 효종 7년(1656)부터 현종 1년(1660) 1월까지 삼척도호부사로 재직중이던 시기에 강원감사로 부임한 강백년의 재정지원을 받아 「擊蒙要訣」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효종 9년(1658) 4월에 강원감사로 부임한 강백년은 현종 1년(1659) 6월 8일 좌승지(左承旨)로 전임되었으므로²¹⁾ 그가 강원감사로 재직하던 1658년 4월 이후 1659년 6월 초 사이에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기의 後識의 내용으로 미루어 삼척부에서 「가례」도 간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戊戌(1658)九月日三陟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가례」의 유통본이 확인되었다. 이 책의 간기에 따르면 통정대부삼척도호부사 이성기와 통정대부수강원도관찰사겸순찰사(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巡察使) 강백년의 이름이 있어 이 「가례」가 이성기가 언급하는 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간행할 때 이성기의 청원에 의해 「擊蒙要訣」도 함께 간행하게 된 것이다. 이 삼척부에서 간행된 「가례」의 간기에 의해 「擊蒙要訣」 역시 孝宗 9년(1658) 9월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卷首面



刊記面



<그림 1> 戊戌九月日三陟府開刊 「家禮」

21) 「顯宗實錄」 1권, 즉위년(1659) 6월 8일(丁酉) 1번째 기사.

“丁酉/以宋時烈爲判義禁, 時烈秩在正二品, 不入擬望中, 故命加擬正二品, 因以授之. 鄭致和爲兵曹判書, 金南重爲工曹判書, 姜栢年爲左承旨, 李翻爲奉教.”

고려대 소장 『冊板置簿冊』(신암 貴 549)에 의하면, 1740년 경 삼척부(三陟府)에 이 판목이 소장되어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간행본의 형태사항은 ‘4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0 × 16.0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2-3葉花紋魚尾’로 1628년 해서감영(海西監營) 간행본의 판식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서감영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의 後識 끝에 적힌 墨書識記에 ‘康熙己卯(1675)中秋日 買得於南宮書房瓦處’라는 내용이 있어 17세기 書肆연구에 참고가 된다.

5.2 속중 16년(1690) 鏡城府 간행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C2-119I)과 개인소장본 北黃紙本 『擊蒙要訣』은 판복지방 간행본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이 판본에는 속중 16년(1690) 3월 장암(丈巖) 정호(鄭澍, 1648-1736)가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있을 때 간행한 책으로 권말에 그가 쓴 지기(識記)가 있어 간행의 경위가 파악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

… 전략(前略)

이 책이 세상에 유통된 지가 거의 백여 년이 되어 우리나라 선비들이 집마다 전하며 집안에서 외우지 않음이 없으나 유독 북쪽 지방의 외진 먼 곳에선 얻어

22) 『擊蒙要訣』 속중 16년(1690) 鏡城府本 鄭澍 後識.

“爲人之道學問而已學問之方惟在於循序漸進力行實踐而後可以有成自夫俗偷教弛學者徒尙虛名不務實地或有不習灑掃之節而妄談平治之術不求人事之則而遽談天地之理以至冥行摘埴卒無所成就者滔滔皆是此栗谷先生之所以有憂而作是書者歟此書大意要使學者收放復初從近達遠循循立脚槌槌下功在初學實爲入德之方而至於喪祭一節尤眷眷致意援古證今務合情禮使人人得自盡於慎終追遠之道嗚呼至矣此書之行於世迨將百有餘年我東士子無不家傳而戶誦獨北方僻遠得見者鮮見而知其味者尤鮮可不惜哉歲己巳(1689)余出判雄城方欲鳩材刊行聞府中人姜敏仁者家藏是編余亟取以來問其所從得則對曰故閔尙書維重爲通判時振作儒化首以此書教授邑子渠亦從衆聽教仍得一通至今寶藏云噫敏仁卽府之賤隸也能知讀書卒以孝行見稱至於免役受復則安知非觀感於閔公之化而取燭於是書之旨歟遂用其本而刊之廣摸傳使北方士子終被閔公嘉惠之澤云 上章敦睦(庚午, 1690)季春上澣 後學烏川鄭澍謹識.”

본 자가 드물었고, 보고 난 후 이 책의 의미를 아는 자는 더욱 드무니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년(己巳, 1689)²³⁾ 내가 치성(雉城)²⁴⁾을 다스리며 재료를 모아 책을 간행하려는데 부(府) 중 사람 姜敏仁²⁵⁾의 집에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빨리 가져오게 하여 책을 가지게 된 연유를 물으니 답하여 말하길 “돌아가신 민유중(閔維重, 1630-1687)대감이 通判로 있으실 때 儒學의 교화를 진작시키면서 맨 먼저 이 책으로 읍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저 또한 배우는 무리를 쫓아 가르침을 들은 연유로 책 한 벌을 얻어 보물처럼 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기쁘다! 강민인은 부(府) 중의 천한 종이나 능히 책을 읽을 줄 알았고 마침내 효행이라 일컬어져 면역(免役)과 세금을 면제받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민공(민유중)의 교화를 보고 감동되어 이 책이 비취주는 뜻을 취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책을 사용해 간행하고 널리 본떠 전하게 하여 북쪽 지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끝까지 민공의 아름다운 혜택을 받게 하노라. 상장돈장(上章敦莊, 庚午, 1690) 계춘(季春) 상한(上澣)에 후학 오천(烏川) 정호(鄭澍)가 삼가 쓰다.

위의 기록과 관련하여 정호의 문집인 『丈巖先生集』 卷24에 수록된 <민상서 유중판경성시사적기(閔尙書維重判鏡城時事蹟記)>, <경성효자강민인정려기(鏡城孝子姜敏仁旌閭記)>에서도 이 판본의 간행과 관련한 사실들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형태사항은 ‘45張: 插圖, 四周雙邊 19.0 × 16.0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고, 간행에 이용된 底本은 경성판관으로 부임해 경성부 주민의 교화를 위해 힘쓰던 민유중에게 얻은 노비출신의 강민인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책을 저본으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해서감영본이나 삼척부 본과 같은 9行 18字에 임란이후의 간행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2葉花紋魚尾 형태를 띠고 있다.

23) 『肅宗實錄』 22권, 숙종 16년(1690, 庚午) 6월 29일(戊子)의 기사로 미루어 정호는 당시 鏡城判官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鏡城.

25) 壬辰倭亂 때의 義士 姜文佑(生沒年未詳)의 庶孫이다. 『輿地圖書』에 ‘姜閔仁 彰烈祠配享 義士文佑之庶孫自少孝友出天能讓嫡嗣善養父母 肅宗朝癸亥有 旌閭’라는 기록이 있다.

5.3 영조 3년(1727) 湖左水營 간행본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3A1-격3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C2-119G) 『擊蒙要訣』은 영조 3년(1727) 여수에 있던 湖南左道 水營에서 간행한 것이다. ‘崇禎丁未(1727)季春湖左水營開刊’라는 간기가 있어 정확한 간행시기의 확인이 가능하다.

형태사항은 ‘48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8 × 15.5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이다. 이 간행본은 9행 15자본으로 『擊蒙要訣』 초기 간행본의 특성을 띠고 있다. 황해감사 이경용이 간행하여 중앙에 올린 간행본과는 다른 책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주에서 간행된 초간본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5.4 영조 3년(1727) 箕營 修補本

年號가 없이 干支 연도만 표기되어 있는 『擊蒙要訣』 ‘丁未四月箕營修補’본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소장본(D192.5-이69)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古159-22) 등 현전본이 비교적 자주 발견되고 있는 판본이다.

이 판본의 간행시기에 대하여는 소장처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간행시기 추정을 위해서는 ‘箕營’에서 간행된 현전본들의 간행시기 고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양감영의 별칭인 ‘箕營’이라는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영조연간 이후이다.

丁未年 四月에 箕營에서는 각종 문헌의 개간을 비롯하여 기존에 장판각에 보관중이던 책판을 이용한 보수본의 발행 등 활발한 간행활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丁未四月箕營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현전본은 『武經七書』 7종 14책²⁶⁾을 비롯하여 『二倫行實圖』가 있고, ‘丁未閏三月日箕營開刊’의 간기가 있는 『三禮儀』,

26) 孫武子直解(1-3), 吳子直解(4), 司馬法直解(5),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尉繚子直解(9-10), 六韜直解(11-13), 三略直解(14).

『續三綱行實圖』가 있으며, ‘丁未四月日箕營修補’ 간기가 있는 『擊蒙要訣』 등 총 11종이 정미년에 기영에서 간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정미년 간행본 간기의 특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목기(木記)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丁未四月箕營開刊’ 『이륜행실도』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심악 170.951 J569ig)으로 ‘雍正八年(1730)三月二十一日 內賜同知義禁府事梁聖揆二倫行實圖一件 …’의 내사가 있어 이 책을 간행한 시기가 영조 3년(1727)임이 확인된다. 둘째, ‘丁未閏三月日箕營開刊’의 간기가 있는 『三禮儀』, 『續三綱行實圖』 중 전남대 소장본(OC1E2삼234b)의 『삼례의』는 숙종 37년(1711) 김간(金幹, 1646-1732)이 쓴 발문이 있고, ‘壬子季夏宋按使印送于李威’의 묵서지기(墨書識記)로 간행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壬子년에 해당하는 연도는 1732, 1792, 1852년이 있다. 이 중 송씨가 관찰사로 있었던 시기는 영조 8년(1732)으로 송진명(宋眞明, 1688-1738)이 유일하다.²⁷⁾ 정조 16년(1792)의 평안감사는 홍양호(洪良浩, 1724-1802)였으며, 철종 3년(1852)의 관찰사는 이학수(李鶴秀, 1780-1859)와 김병기(金炳冀, 1818-1875)였다.²⁸⁾ 따라서 영조 8년(1732) 관찰사 송진명이 인쇄하여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영에서 정미년에 간행한 『삼례의』의 정확한 간행시기는 영조 3년(1727)임이 확실하다. 더구나 정미년으로 윤3월이 있었던 해는 영조 3년이었다. 셋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古 1149 7)인 『속삼강행실도』는 ‘雍正八年(1730)三月二十一日 …’의 내사가 있어 역시 영조 3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무경칠서』 7종 14책의 간행시기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一簣古 355.43 Sa41s) 『무경칠서』 5인 『司馬法直解』에 적힌 묵서지기(黑書識記) ‘乾隆三十八年癸巳(1773)三月日 訓鍊’이라는 내용으로 『무경칠서』 또한 영조 8년(1727)의 간행본임이 확인된다.

27) 『英祖實錄』 30卷, 7年(1731 辛亥) 9月 25日(乙酉) 1번째 기사.

“… 金相奭爲修撰, 宋眞明爲平安道觀察使.”

28) 尹斗壽 編, 『平壤續志』, 平壤: 箕營, 哲宗 6(1855), 宦蹟條.



<그림 2> 영조 3년(1727) 箕營 간행본의 간기

정조 20년(1796) 「누판고」에서도 이 「무경칠서」 판목이 모두 關西觀察營(箕營)에 ‘刳缺’²⁹⁾인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개판된 지 오래되어 판이 이지러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丁未四月日箕營修補’ 간기가 있는 「擊蒙要訣」의 판식은 ‘48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6.9 × 15.3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2-3葉花紋魚尾’이다. 선조 15년(1582)의 옥천 간행본과 비교해 보면, 화문이 들어간 어미부분을 제외하고는 반곽의 크기가 비슷하고 행자수가 같음이 확인된다. 임란이전에 처음 간행한 판목을 가지고 유실되거나 이지러진 부분을 새로 판각하고 보수(補修 또는 修補)하여 재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擊蒙要訣」은 영조 이후에 간행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 시기는 기영에서 활발한 서책 간행이 있었던 시기에 병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조 3년(1727)의 평안도관찰사는 홍석보(洪錫輔, 1672-1729)로 재임기간은 영조 2년(1726) 9월 6일부터 영조 3년(1727) 6월 9일까지였다. 홍석보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도서 간행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5 고종 25년(1888) 英陽縣 開刊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C2-119N) 영양현 간행본은 기존의 간행본을 저본으로 판각한 번각본이 아니고 새로 조성한 목판으로 찍은 것이다. 여러 책판 목록이나 읍지의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영양현 간행 「擊蒙要訣」 간기는 ‘戊子冬英陽縣開刊本’으로 되어 있다.

朝鮮 憲宗年間에 궐내의 奎章閣 本閣에 소장된 全國各道の 邑誌 중에서 누락된 邑誌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서 完帙을 藏置하려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읍지 상송령에 따라 憲宗 11년(1845) 경에 英陽縣에서 編纂된 현존하는 「英陽縣邑誌」(장서각K2-4271)를 참고하면, 순조 31년(1831) 중앙에서 하달된 ‘先賢의 碑文과

29) 나무, 돌, 쇠붙이 등에 새긴 것이 닳아서 흐려지거나 모서리가 깨어져 그 모양이 희미해지는 현상.

30) 徐有渠, 「鏤版考」(서울: 韓國古典開發學會, 1968), 91-94.

冊板을 并書할 것'이라는 作成規式이 적용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책판목록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인결과 영양현에 소재한 책판목록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戊子冬英陽縣開刊本'의 간행시기는 이 邑誌가 작성된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무자년은 高宗 25년(1888)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의 형태사항은 '42張: 四周雙邊 半郭 20.5 × 16.5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5.6 1901년 宋秉璿 간행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고서(II) 181.49 격몽요 5)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광무 5년(1901)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형태사항은 '2卷1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0 × 16.2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이다. 卷首에 정조의 어제서와 율곡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송병선이 쓴 발문이 있다. 송병선의 시문집 『淵齋先生文集』에 <隱屏精舍重建記>가 있어 평소 송병선이 율곡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율곡에 대한 존경심이 『擊蒙要訣』의 간행으로 이어진 듯하다.

5.7 광무 6년(1902) 用夏洞 新刊本

'壬寅仲春用夏洞新刊'의 간행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C2-119E)으로 목활자본으로 임인년에 용하동이라는 곳에서 간행한 것이다. 用夏洞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억수마을의 상류 자연부락 일대를 말하는데 어떤 연유로 이곳에서 『擊蒙要訣』을 누가 간행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거칠고 조악한 지방의 목활자로 찍었으며, 종이의 재질이나 인쇄의 상태 등으로 보아 조선후기의 인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에 나타나는 임인년은 광무 6년(1902)이며 제천의 용하동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화(朴世和, 1834-1910), 윤웅선(尹膺善, 1854-1924) 등의 구한말 유학자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 학도들을 가르치

고 의병을 일으키는 등의 활동을 했던 문화적 배경이 바탕이 되어 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의 형태사항은 ‘42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0.5 × 16.0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文魚尾’이다.

5.8 1917년 商西 龍巖 新刊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만송C1-A13H) ‘商西龍巖新刊本’은 ‘商西’의 ‘龍巖’에서 개간한 목판본으로, 시중에서도 자주 눈에 띄는 현전본이 비교적 많은 간행본이다. ‘商西’는 尙州의 구지명인 商山의 서쪽이라는 뜻이므로 상주에 있는 ‘龍巖’이라는 곳에서 간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권말에 저자를 밝히지 않은 지문이 있어 간행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상서용암본의 저본은 肅宗 16년(1690) 경성에서 정호에 의해 간행된 「擊蒙要訣」이다. 당시 정호가 쓴 발문에 이어 편자가 이 책의 간행경위와 관련한 글을 적어 놓았는데, 둔촌 민공(閔維重, 1630-1687)과 장암 정호가 경성에서 「擊蒙要訣」로 읍내 유생들을 가르쳐 영북의 황량하고 적막한 땅에서도 율곡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데, 영남지역에도 이 책이 있기는 하지만 판본이 아니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많아 염려스러워 바른 교육을 위해 사재를 털어 재료를 구입하고 직접 글씨를 써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는 내용이다.³¹⁾ 즉 정호가 간행한 책을 번각한 것이 아니라 권말의 識記를 적은 편자가 직접 글씨를 써서 자비로 간행한 것임이 확인된다.

31) 「擊蒙要訣」 肅宗 16년(1690) 京城刊本 鄭澐 跋文.

“易曰蒙以養正聖功也蓋爲學之方必先孩提者所以謹其始而明先立之見也夫學問而盡修齊治平之道而大學之教極而原其本則只是從小學灑掃中出來者耳世之學者不能內修其本而外飭其末以至於日用常行之不可一日而不修者并昧然不知而古彌遠學教日頽栗谷李先生憂時而作是書題其名爲擊蒙取其蒙養之義欲學者自幼少而知爲學之次序而其於祭儀一節尤眷眷致詳焉於是而細大包本末該爲後世之章程者不待他求而瞭如指掌矣書之行于世者久而獨北方以其僻遠未得見之既而屯村閔公通判雉城以其書教授邑中諸生丈巖鄭公後又從而刊行之然後嶺北荒閒寂寞之境莫不知有栗谷先生而學先生之學至今北之人往往有卓異之行者豈豈非二公之德也耶是書之在於嶺之南者亦無幾而傳寫抄錄間多訛舛復恐世遠編殘無以開迪正學培導其本源於幼穉之時將欲刊行而廣傳之出私財市木又手自書之鉅之積累月而功歇 丁巳七月三日也.”

이 간행본의 간행 시기에 대하여는 소장처마다 기록을 달리하고 있으나 본문의 서체와 판각 상태가 매우 유사한 ‘商西新刊’ 『初學文』³²⁾이 있어 간행시기의 추정
에 도움이 된다. 정동철(鄭東轍, 1859-1939)의 『初學文』은 1910년 상주에서 간
행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정동철이 숙종 16년(1690) 경성부에서 鄭澐가 간행한
『擊蒙要訣』을 저본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이를 판각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
으로 보는 이유는 본문의 글씨체가 『初學文』의 그것과 같고 『初學文』에 수록되
어 있는 저자가 쓴 발문의 문체도 ‘상서용암신간본’ 『擊蒙要訣』의 지기와 유사하
다는 점이다. 또한 두 책의 종이의 재질이나 판각의 상태와 서체의 유형 등이
조선후기의 간행본으로 추정된다. 권말에 정호의 발문에 이어 글쓴이를 밝히지
않은 ‘丁巳七月三日’에 쓴 識記의 작성자는 『初學文』의 저자인 정동철로 짐작되
며, 정사년은 1917년으로 추정된다. 정동철과 관계가 있는 간행본으로는 이 외에
정진우 편, 정동철 교정의 1928년 상주 世德祠에서 간행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본(古朝57-가-216) 『東祠八賢實記』, 목활자본과 정상관 편, 정동철 교정 1928년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 46-가-406) 『谷口園記』, 목활자본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북 상주군 서면 신촌리에서 간행된 책들이다. 평소 정동철이 도서
간행에 자주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龍巖’은 상주군 만악산에 있는 절 ‘용암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군 서면 신촌리에 있던 편자의 堂號인지, 아니면 특정
지명인지는 알 수 없다.

이 판본의 형태사항은 ‘1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27.0 × 15.7 cm, 有界, 10行
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로 비교적 독립적인 판식을 띠고 있어 형태적인
면에서 형태서지상 시대적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상서용암신간본’은 권수에 정조어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정조의 어제서와 丈巖 鄭澐의 발문에 이어 편자의 지기가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고 정조어제서가 생략된 책도 있다.

32) 許傳(1797-1886)의 『초학문』과는 다른 책임.

5.9 임란이후 關北觀察營 간행 추정 목판본

장암 정호의 1690년 경성 간행본과 다른 판본의 함경도지방에서 생산되는 北黃紙 또는 黃蘗紙로 불리는 책지로 간행된 책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대학원 C1 A13)되어 있다. 판심의 어미형태가 독특한데, 어미안에 花紋이 들어있지 않고 커다란 화문만 있는 형태로 일반적인 魚尾모양이 아니다. 판각의 상태나 인쇄상태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아 개인이 간행한 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형태사항은 ‘49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5 × 17.4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로 행자수는 초기간행본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율곡의 서문 이외에 간행에 관한 정보는 없다. 다만 책지로 사용된 종이가 함경도에서 생산되던 지역 특산품이었다는 점에서 관북관찰영에서 간행한 책으로 짐작되며 『누판고』의 ‘關北觀察營藏 刊缺 印紙一牒十六張’의 책판으로 간행시기는 임란이후로 짐작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행시기가 분명한 간행본과 국내 서지DB에 수록되어 있는 것 중 간행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간행시기 추정에 문제가 있었던 간행본들의 정확한 간행시기를 고증하여 간행시기가 밝혀진 판본들을 종합하여 『擊蒙要訣』의 현전본을 체계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擊蒙要訣 현전본

刊年	版本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처	비고
1577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宣祖 10(1577)]	50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0 × 15.6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序: 丁丑(1577)...李珥	개인	附: 祭儀抄
1582	木板本	[沃郡]: [具灌], [宣祖 15(1582)]	51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6.5 × 15.2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序: 丁丑年(1577)...李珥, 跋: 萬曆壬午(1582) 七月庚申綾城具灌謹跋	개인	附: 祭儀抄
1629	木板本	[海州]: [黃海監營], [仁祖 7(1629)]	4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19.7 × 15.9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	內賜記: 崇禎三年(1630) 正月日...太白山上, 香山史庫上, 五臺山史庫上, 序: 丁丑(1577)...李珥	규장각 (奎2824)	附: 祭儀抄
1658	木板本	[三陟]: [三陟府], [孝宗 9(1658)]	4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0 × 16.0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2-3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後識: 姜公栢年翁神本府刊出...李聖基略記	고려대 (만송C1A1 3L) 등	附: 祭儀抄

刊年	版本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처	비고
1665	筆寫本	[漢城]: [柳忠傑 1588-1665]. [刊寫年未詳]	40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3.0 × 17.0 cm, 有界, 10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序: 丁丑年(1577)...李珥, 跋: 萬曆壬午(1582)七月庚申綾城具瀟謹跋. 印: 晉山後人柳忠傑蓋白, 錦沙	개인	附: 祭儀抄
1690	木板本	[鏡城]: [鏡城府]. [肅宗 16(1690)]	45張: 四周雙邊 19.0 × 16.0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卷後: 上章敦祥(庚午, 1690)...烏川鄭濬謹識 序: 丁丑(1577)...李珥, 紙質: 北黃紙	장서각 (C2-119I)	附: 祭儀抄
1727	木板本	[麗水]: 湖左水營, 英祖 3(1727)	48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8 × 15.5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內向混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刊記: 崇禎丁未(1727)季春湖左水營開刊	전남대 (3A1-격35○)	附: 祭儀抄
1727	木板本	[平壤]: 箕營, 英祖 3(1727)	48張: 四周單邊 半郭 16.7 × 15.5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刊記: 丁未(1787)四月日箕營修補, 序: 丁丑(1577)...李珥	국중 (일산古 159-22)	附: 祭儀抄
1814	木板本 (울곡전서 자본각)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純祖 14(1814)]	34張: 四周雙邊 半郭 21.7 × 15.0 cm, 有界, 11行 20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연세대 (해관 177 격몽요)	附: 祭儀抄
1858	再鑄 整理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858以後]	20張: 四周單邊 半郭 23.5 × 15.1 cm, 無界,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序: 丁丑(1577)...李珥	연세대 (고서(II) 181.49 격몽요)	
1888	木板本	英陽縣: [英陽縣], [高宗 25(1888)]	4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5 × 16.5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刊記: 戊子(?)冬 英陽縣開刊	장서각 (C2-119N)	附: 祭儀抄
1901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武 5(1901)]	42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0 × 16.2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御製序: 上之十二年戊申(正祖 12, 1788)...李秉模, 序: 丁丑(1577)...李珥, 重刊跋: 時重光亦齋若(辛丑, 1901)...宋秉璋	연세대 (고서(II) 181.49 격몽요 5)	附: 祭儀抄
1902	木活字本	[제천(忠北)]: 用夏洞, 光武 6(1902)	42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0.5 × 16.0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文魚尾	刊記: 壬寅(1902)仲春用夏洞新刊 序: 丁丑(1577)...李珥	장서각 (C2-119E)	附: 祭儀抄
1911	木板本 (울곡전서 자본각)	全州: 西溪書舖, 1911	34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1.1 × 15.1 cm, 有界, 11行 20字 註雙行, 花口, 上下向2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전남대 (3A1-격35○)	附: 祭儀抄
1916	木板本 (울곡전서 자본각)	全州: 文明書館, 1916	1冊: 圖, 四周單邊 半郭 20.9 × 15.0 cm, 有界, 11行 20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장서각 (C2-119F) 등	附: 祭儀抄
1916	新鉛活字 本	京城[서울]: 朝鮮書館, 1916	1冊: 四周雙邊 半郭 17.3 × 11.5 cm, 無界, 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序: 丁丑(1577)...李珥	전남대 (3A1-격35○)	附: 夙惠記略
1917	木板本	商西[尙州]: 龍巖, 1917	1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27.0 × 15.7 cm, 有界, 10行 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序: 丁丑(1577)...李珥 後識: 上章敦祥(庚午, 1690)...鄭濬謹識, 丁巳(1917)...[編者(鄭東轍)] 刊記: 商西龍巖新刊	고려대 (만송C1-A 13H)	附: 祭儀抄

「擊蒙要訣」 초간본과 현전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刊年	版本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처	비고
1919	新鉛活字本	京城[서울]: 新舊書林, 1919	1冊: 四周雙邊 半郭 17.5 × 11.2 cm, 無界, 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序: 丁丑(1577)...李珥	동국대 (D192.5- 이69박)	
1920	木板本	京城[서울]: 翰南書林, 1920	1冊: 四周單邊 半郭 21.7 × 15.2 cm, 有界, 12行 2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序: 丁丑(1577)...李珥	영남대 (古도378.9- 이이口)	附: 祭儀抄
1921	新鉛活字本	京城[서울]: 新舊書林, 1921	1冊: 四周雙邊 半郭 17.2 × 11.5 cm, 無界, 9行 23字 註雙行, 無魚尾	序: 丁丑(1577)...自序	동산도서관 (370- 이이격)	
1922	木板本	京城[서울]: 翰林書林, 1922	1冊: 四周單邊 半郭 21.7 × 15.2 cm, 有界, 12行 2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序: 丁丑(1577)...自序	국중 (BC古朝17- 26-3)	附: 祭儀抄
1928	石版本	江陵: 權五成家, 1928	1冊: 四周單邊 半郭 21.6 × 16.0 cm, 有界, 8行 17字 註雙行, 無魚尾	序: 卽昨之十二年戊申 (正祖 12, 1788)...李秉模 奉教謹書	동산도서관 (370- 이이격)	
1935	石版本	江陵: 鄭然基, 1935	35張: 四周單邊 半郭 21.6 × 16.8 cm, 有界, 8行 15字 註雙行 無魚尾	序: 卽昨之十二年戊申 (正祖 12, 1788)...李秉模 奉教謹書	국중 (BA1247- 72)	
1935	石版本	江陵: 江陵古蹟保存會, 1935	35張: 四周單邊 半郭 21.6 × 16.8 cm, 有界, 8行 15字 註雙行 無魚尾	序: 卽昨之十二年戊申 (正祖 12, 1788)...李秉模 奉教謹書	고려대 (신암C1- A13E)	
未詳 1	木板本	[關北]: [關北營], [刊寫年未詳]	49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5 × 17.4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고려대 (대학원 C1 A13)	附: 祭儀抄
未詳 2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48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17.0 × 16.5 cm, 有界, 9行 15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울곡기념 도서관 (고451.47- 이817ㄱ)	附: 癸儀抄
未詳 3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4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3 × 16.2 cm, 有界, 9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영남대 (古南378.9- 이이口)	附: 祭儀抄
未詳 4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2卷1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19.5 × 15.2 cm, 有界, 9行 21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序: 丁丑(1577)...李珥	국중 (b11570-30)	附: 癸儀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전하는 「擊蒙要訣」 중 선조 10년(1577)부터 1945년 이전까지 단행본으로 간행된 책은 27종이며, 이중 울곡전서자본각본을 포함한 목판본 19종, 목활자본을 포함한 활자본 2종, 신연활자본 3종, 석판본 3종이다. 이 중 간행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총 4종이다.

판식의 흐름을 보면 초기의 간행본은 9행 15자본이 주류를 이루고 황해감사

이경용이 9행 18자본으로 간행하여 중앙에 올려 중외에 반사된 이후 이를 저본으로 하는 번각본과, 초간본을 저본으로 하는 번각본이 병행하여 간행되면서 9행 18자본과 9행 15자본 두 가지 종류가 유통되었다. 영조 25년(1749) 홍계희에 의해 율곡전서자로 찍은 『栗谷先生全書』가 간행된 후 권 27에 들어있는 『擊蒙要訣』을 단행본으로 번각하여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간행본은 11행 20자본으로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선후기에는 상업출판물의 간행에 활용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동활자인 재주정리자로 찍은 10행 20자본 등으로 판식이 다양해지고 개화기 이후 신연활자본의 간행으로 이어진다. 어미의 모양은 한국고문헌의 시대적 특성과 양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版心の 魚尾의 모양이 초기의 간행본은 흑어미이며 임진왜란시기를 거치면서 2-3엽의 화문어미로 바뀌고 활자본 이외의 목판본에서는 2엽화문어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擊蒙要訣』의 부록으로 수록된 <祭儀抄>는 초간 이후 본문에 포함되었으나 개화기 이후 상업적 간행본이 등장하면서 부록에서 생략되거나 <夙惠記略>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6. 결 론

조선시대 선조 10년(1577) 율곡 이이가 저술한 후 해주에서 초간하여 초학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擊蒙要訣』의 초간본과 현전본에 대한 서지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擊蒙要訣』 현전본을 분석해보면 초간 이후의 간행과 유통의 경향은 대략 관판의 간행 및 보급시기, 방각 및 번각본의 출현시기, 근대적 상업출판본의 출현과 유통의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인 官版의 간행 보급시기는 해주에서의 초간 이후 18세기 중반 『栗谷先生全書』의 간행시기까지로 해주에서의 초간 이후 200여년 동안은 지방의 감영에서 적극적으로 간행하여 관내 주민의 교재로 보급하였으며, 『栗谷先生全書』가

간행되면서 「擊蒙要訣」의 간행과 유통이 변환기를 맞는다.

두 번째 단계인 방각 및 번각본의 출현과 보급시기는 18세기 후반부터는 「栗谷先生全書」의 권27에 편입되어 「擊蒙要訣」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목판본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재주정리자본, 고종 25년(1888) 영향현 간행 목판본, 광무 5년(1901) 목판본, 광무 6년(1902) 목활자본 등은 간행의 주체가 官에서 개인이나 민간으로 이동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근대적 상업출판본의 출현으로, 20세기 초반부터는 근대적 상업출판본이 나타나 유통되기 시작하였는데, 신식 출판 및 인쇄기술이 도입되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율곡전서자본의 번각 보급과 방각본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인쇄방식을 이용한 신연활자본과 석판본 등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擊蒙要訣」의 판본계통은 목판본, 금속활자본, 기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 목판본은 初刊本계통, 沃川本계통, 黃海監營本계통으로 나뉘며 금속활자본 계통에는 栗谷全書字本(1749), 再鑄整理字本(1858), 新鉛活字本, 正祖序文石版本 등이 있다. 계통을 구분하기 어려운 宋秉璫本(1901), 用夏洞本(1902), 商西龍巖本(1917), 翰南書林本(1920, 1922), 간행시기미상의 9행 21자본 등은 기타에 해당한다.

간행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간행시기 추정에 문제가 있었던 간행본들에 대한 간행시기의 고증을 통해 간행시기가 밝혀진 판본들은 효종 9년(1658) 三陟府李聖基 간행본, 영조 3년(1727) 箕營 修補本, 고종 25년(1888) 英陽縣 開刊本, 1901년 宋秉璫 간행본, 광무 6년(1902) 用夏洞 新刊本, 1917년 商西 龍巖 新刊本 등이다.

현전하는 「擊蒙要訣」 중 선조 10년(1577)부터 1945년 이전까지 단행본으로 간행된 책은 27종이며, 이중 율곡전서자본번각본을 포함한 목판본 19종, 목활자본을 포함한 활자본 2종, 신연활자본 3종, 석판본 3종이다. 이 중 간행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총 4종이다.

판식의 흐름은 초기의 9행 15자본에서 황해감영본(1629) 이후 9행 18자본이 유통되기 시작하고, 「栗谷先生全書」 간행 이후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11행 20자본

과 재주정리자로 찍은 10행 20자본 등으로 판식이 다양해지고 개화기 이후 신연 활자본의 간행으로 이어진다. 版心の 魚尾의 모양이 초기의 간행본은 흑어미이며 임진왜란시기를 거치면서 2-3엽의 화문어미로 바뀌고 활자본 이외의 목판본에서는 2엽화문어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各道冊板目錄』. 筆寫本. [憲宗 6(1840)].

『廣州府邑誌(京畿道)』. / 慶州府(朝鮮) 編. 筆寫本. 光武 3(1899)頃.

『完營冊板目錄』. 筆寫本. 英祖 35(1759).

『諸道冊板錄』. 筆寫本. [1750頃].

『重訂南漢誌. 1-6(卷1-13)』. / 洪敬謨(朝鮮) 編. 筆寫本. [憲宗 12(1846)].

『冊板置簿冊』. 筆寫本. [1740頃].

『湖南冊板錄』. 筆寫本. 1917.

강우영. “16C 初學教材 研究.” 『安東漢文學研究』 Vol.1(1990). 107-128.

권미자.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 편찬과 그 의의.” 『울곡학보』 Vol.5(1997). 525-559.

김치우 저.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丹陽郡 편. 『丹陽郡誌』. 단양: 단양군, 2005.

徐有渠 著. 『鏤版考』. 서울: 韓國古典開發學會, 1968.

안경애.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Vol.7(1991). 83-116.

윤영숙. “『동몽선습(童蒙先習)』과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비교고찰(比較考察).”

『한자한문교육』 Vol.3, No.0(1997). 311-338.

前間恭作 編. 『古鮮冊譜』. 東京都: 東洋文庫, 1944.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板目錄總覽」.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서울: 朝鮮通信社, 1932.

崔載弼...[等編]. 「海州邑誌」. 海州: [刊寫者未詳], 1937.

韓國圖書館學研究會 編. 「攷事撮要」. 서울: 南文閣, 1974.

한예원. “초학(初學) 한문교재(漢文教材)로서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의의(意義) - 조선유교(朝鮮儒敎)의 관습화(慣習化) 과정(過程) -.” 「한문교육연구」 Vol.33(2009). 499-533.

